

\*  
김은수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
	1. 토탈 사운드의 수용
	2. 반주에서 무용으로
	III. 무용음악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2. 분류
	IV. 결론
	참고문헌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22.02.02.

논문심사일 : 2022.02.05.

게재확정일 : 2022.03.03.

##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ance music

Kim, Eun-soo · Kookmin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fundamental standard for dance music research by suggesting a new definition of dance music and classifying it. Through this research, it has been proven that dance music includes all sounds from traditional to modern digital sound to express dance.

Therefore, this study newly defines dance music as ‘total sounds used in dance’ and classifies it into four categories: ‘Music’, ‘Voice’, ‘Soundscape’, and ‘Effect sound’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nce. Each of the four categories has subcategories.

‘Music’: The temporal, spatial, vigorous, and visual image music. These are considering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 of dance music.

‘Voice’: song, narration, mouth noise, and shout. These can be conveyed through the voices of the dancers as well as the singers.

‘Soundscape’: space sound for describing space, and ambient sound for the environment.

‘Effect sound’: on-site sound, sound effect, and visual sound.

<key words> definition of dance music, classification of dance music, voice, soundscape, effect sound

<주요어> 무용음악의 정의, 무용음악의 분류, 보이스, 공간음악, 이펙트 사운드

예술은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술은 저마다의 색깔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가 우리 생활에 필수 영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예술 표현의 형태도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상공간의 체험이 가능해졌으며 현실과 가상공간을 합성한 디지털 공간들이 물리적 현실 세계와 평행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사운드는 시각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음악을 능가하는 막대한 양의 음악을 양산시키고 있다. 영화, TV, 광고, 미술 등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해야하는 미디어분야에서 디지털 사운드는 여러 실험적 형태로 시각화에 일조하며 필수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사운드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음악 해석 및 독자적인 분류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소현, 최진호(2018:41)는 “영화음악은 영화 속 인물 심리를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관객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음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관객의 몰입도, 인물의 심리 및 작품 내용에 가담하는 영화음악의 기능적 측면을 연구하였고, 전희현(2019:372)은 영화음악을 “대사(dialog), 음악(music), 음향효과(sound FX), 폴리 디자인(foley sounds), 앰비언트(ambience sounds)”로 분류하여 영화의 특성을 충실히 보조할 수 있는 내러티브적 기능을 연구하였다. 김태우, 장준규(2019:52)는 “뉴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 청각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시각적 요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몰입감있는 경험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운드 아이덴티티를 징글jingle, 비지엠BGM, 내레이션narration, 폴리 효과음(foley sound), 앰비언트(ambient sound), 특수효과음(SFX:special effects)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영화, 광고, 미술 등 타 분야에서는 음악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두고 이러한 기준에 준하여 음악의 시각적, 내용적, 표현적, 기능적 역할 등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용은 움직임과 음악이 결합하여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표현예술이다”(김은수, 2021:71). 다시 말해 시·청각이 밀접하게 결합된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용에서의 음악은 타 예술에서처럼 ‘기능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춤추는 몸과 교류하며 무용예술을 완성시키는 ‘본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무용음

악을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국한시킨 정의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무용 음악에 대해 무용과 공존, 소통, 발전하는 고유하면서도 포괄적인 가치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무용음악의 범주를 무용에서 행해지는 모든 청각적 사운드로 확장시켜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 새로운 관점의 선행 연구가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 무용음악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융합으로 인하여 자칫 예술 고유의 본질에 혼돈이 초래될 수 있는 시점에서 무용음악의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무용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용음악을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고 무용의 관점으로 분류함으로써 향후 무용음악 연구의 근본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무용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II 무용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

### 1. 토탈 사운드의 수용

무용의 예술성은 아름다운 포즈의 조형미적 가치, 움직임·리듬·흐름 등 포즈의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가치, 기분이나 감정을 몸으로 나타내는 표현미적 가치 등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미적 방향성을 추구하며 발전해왔다.<sup>2)</sup> 김화숙, 한혜리(1999:12)가 “무용이란 인간의 신체운동으로 공간형식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미적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예술”이라 정의하였듯이 무용은 사회 환경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상상하는 모든 현상을 몸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무용음악은 “인간의 정서 변화에 영향을 주며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김은수, 2021:63)으로서 무용의 가치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up>1)</sup>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는 김은수(2020a), “무용음악:노이즈 사운드의 미적 가치 및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2), 175-194. 김은수(2020b), “사일런스 사운드의 무용음악적 해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3), 111-126. 김은수(2020c), “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101-115. 김은수(2021), “사운드의 정서적 효과 및 활용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61-74. 참조.

<sup>2)</sup> 무용의 미적 가치 변화에 대한 내용은 김화숙, 한혜리(1999)의 무용의 이해 pp.12~14 참조.

무용이 아름다운 포즈의 조형미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음악은 다이내믹, 화성, 리듬 등 악곡 구성을 무용과 일치시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이는 ‘무용음악은 무용을 반주하는 음악’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뒷받침한다. 주로 아날로그 악기로 연주되는 민속 춤곡이나 클래식 발레곡들이 이에 속한다. 무용이 포즈와 포즈의 연결 즉, 시간적 연속성에 가치를 부여할 때 음악은 전통 형식을 배제하고 이미지 중심의 표현적 특성에 집중한다. 복잡하고 심오한 음악 보다는 음형의 반복, 위상음악, 리듬 중심의 타악기 음악 등 단순한 음색에 반복적 특성을 보인다.

무용이 기분이나 감정 등 삶을 몸으로 나타내는 표현미로 가치를 확장시키면서 음악의 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악기 음색만으로 삶을 담아내기에는 제한적이기에 무대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리, 움직임에서 파생되는 소리, 그리고 무음에서 소음까지 가능한 모든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디지털 문화가 생활화된 현 시점에서 무용은 미디어와 결합, 최첨단의 매체들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날로그 음색을 디지털로 변환, 사운드의 결합, 재창조 등 무용음악은 혁신적인 디지털 사운드를 개발, 수용하고 있다. “무용이 신체로 정신적인 감성을 만들어 내고 또한, 정신적 시간이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한혜리, 2001:118) 무용음악은 무용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물리적 연계선상에서 총체적 사운드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 2. 반주에서 무용으로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무용음악은 움직임과 어우러진 형태로 삶에 밀착되어 왔다. 궁정발레와 민속춤 등 무용음악은 무용과 일치된 형식, 음형, 리듬 등 움직임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오랜 기간 무용음악은 이러한 전통적 인식에 고착되어 단순히 무용을 보조하는 반주 역할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Tchaikovsky, P.I. 이후 무용음악은 예술음악으로의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발레뤼스의 혁신적 개혁으로 인하여 Stravinsky, I., Ravel, M., Prokofiev, S., Debussy, C. 등 중요 작곡가들이 무용작품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미 작곡된 연주용 클래식 음악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실험적 음악들이 무용음악으로 사용되고, 전문 음악가와의 협업이 활발해지면서 무용음악은 더 이상 반주의 개념이 아니라 무용 감정 표현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운드 생성이 용이해졌다. 이에 많은 안무가들이 움직임에 최적화된 음악을 직접 제작,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음악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청각적 심상을 담은 움직임도 음악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공간의 물리적, 정신적 교감을 통해 최고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무용예술에서 무용음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임과 공존하며 무용의 본질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제 무용음악은 무용을 위한 반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의 본질을 구성하는 ‘무용’ 그 자체로서의 의미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III / 무용음악의 정의 및 분류

#### 1. 정의

무용음악은 ‘무용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만든 음악’, ‘춤 공연에 연주되는 반주 음악’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지녀왔다. 무용음악 전문 서적에서는 “강한 박자와 리듬 유형을 반복되는 박자 군으로 구성된 음악으로 대개 동작과 음악이 동일한 리듬을 타고 흐른다. 리듬의 강세 뿐 아니라 악구의 길이, 분위기도 대부분 일치한다”(김은수, 1996:9)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술의 미적 가치의 폭이 확장되었고, 비언어적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무용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기에 무용음악에 대한 정의도 현 트렌드에 맞추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 시대 무용음악은 기존에 사용하던 음악에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합성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운드를 제작하거나 상상 속의 사운드를 창조하는 등 모든 소리를 다루고 있다. ‘소리가 없는 음악을 사용한다’, ‘노이즈도 음악이다’, ‘무용수의 움직임은 청각적 심상을 담은 음악이다’ 등 최근 무용음악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무용음악은 무용에서의 모든 사운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김은수, 2020c:114)는 주장은 무용음악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무용음악을 ‘무용에 존재하는 모든 사운드’로 새롭게 정의 한다. 이는 무용에서부터 소음, 대사, 배경음악, 효과음, 음악가의 연주, 디지털 합성 사운드, 무용수의 움직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청각적 자극을 포함한다.<sup>3)</sup> 이제 무용음악은 ‘무용에서의 움직임과 일치해야 한다’, ‘무용수의 대사는 비언어적 예술이라는 무용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등의 제한적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타 장르와의 융합으로 자칫 무용의 실체가 가려질 수 있는 현 시대에 무용음악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무용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자유로운 표현 및 작품의 폭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 2. 분류

음악은 기악곡, 성악곡 등 연주형태에 따른 분류, 악곡구조와 틀 등 음악형식에 따른 분류, 음악의 미적 가치 및 영향력을 중심으로 나눈 분류<sup>4)</sup> 등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미디어음악<sup>5)</sup>은 영역별 특성에 따라 배경음, 효과음, 대사, 음악 등 여러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무용음악은 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무용의 특성 및 본질이 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 음악 뿐 아니라 무용수의 목소리, 공간감을 형성하는 사운드, 다양한 이펙트 등 무용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청각 매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무용음악은 ‘음악’, ‘보이스’, ‘공간음악’, ‘이펙트 사운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표 1).

표 1. 무용음악의 분류

분류	하위분류
음악	시간적 성향의 음악 공간적 성향의 음악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음악 이미지를 부여하는 음악
보이스	노래 대사 입소리 고함
공간음악	스페이스 사운드 앰비언트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현장 사운드 효과음 심상적 사운드

3) 영화에서도 영화음악을 사운드트랙이라 하여 효과음, 음악-장면 속의 음악, 장면 밖의 음악- 뿐 아니라 대사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삽입되는 모든 소리를 통칭하고 있다.

4) 클래식과 비 클래식, 주류와 비주류, 절대음악과 표제음악 등

5) 영화, 광고,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시청각이 결합된 음악

## 1) 음악

‘음악’은 리듬, 선율, 화성, 형식, 빠르기, 다이내믹, 음색 등 전통 음악 구성요소를 갖춘 무용음악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결합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묘사한다. 클래식, 민속음악, 대중음악, 미디어음악 등 일반적 개념의 음악을 칭하며 크게 기악음악과 성악음악으로 나뉜다. 음악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주형태, 형식, 장르, 사조 등 다양하고 학문 분야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미술 분야에서 임윤수(2019)는 미술에 미친 음악적 요소의 특징을 ‘추상성’, ‘시간성’, ‘비물질성’, ‘신체 경험성’의 4 범주로 나누었고,<sup>6)</sup> 공학 분야에서 이동현, 박정욱, 서영석(2018)은 음악을 인간의 4가지 감성(‘기쁜·달달한’, ‘신난·흥분된’, ‘슬픈·화난’, ‘조용한·잔잔한’) 범위로 분류하였다. 김은수(2016)는 무용반주음악을 Laban, R.의 4가지 에포트 인자를 기반으로 움직임의 특성과 결합시켰다. 즉, ‘시간’, ‘공간’, ‘무계’, ‘흐름’에 의거하여 “템포, 박자, 리듬, 프레이즈는 시간적 측면으로, 다이내믹, 악센트, 음역, 음색은 무계적 측면으로, 화성, 음정, 모드는 공간적 측면에, 그리고 텍스처, 반주형, 페달링은 흐름적 측면”(김은수, 2016:122)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피아노 즉흥반주에 대한 연구로서 무용 보다는 연주법을 부각시킨 면이 있지만 움직임의 특성과 음악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같은 맥락으로 ‘음악’은 무용의 정서와 움직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 ‘공간’, ‘에너지’, ‘이미지’의 4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한다. 각각의 범주는 서로 음악적 성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적 성향의 음악’은 리듬, 빠르기, 프레이즈에 중점을 둔 음악으로, ‘공간적 성향의 음악’은 화성, 음향에 중점을 둔 음악으로,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음악’은 다이내믹, 악센트 등 역동적 힘을 가진 음악으로, 그리고 ‘이미지를 부여하는 음악’은 음계, 아티큘레이션, 사조 등과 관계된 음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보이스

‘보이스’는 작품의 내용 및 감정 전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무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목소리를 칭한다. 이는 ‘노래’, ‘대사’, ‘입소리(mouth noise)’, ‘고함’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래’는 가수나 무용수가 현장에서 직접 불러 관객에게 신선한 음색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래 가락과 가사의 의미가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 예로 《Foi》, 《In Memoriam》, 《Babel》 등 Cherkaoui, S.I.의 작품에서는 성악

<sup>6)</sup> 이에 대한 내용은 임윤수(2019) “시각미술에 미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조형미디어학 22(2), 제3장 pp.52-56 참조.



가, 무용수들의 노래가 감성적으로 다가가 분위기를 긴장·이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사’는 매우 효과적인 무용음악이다. 대사를 통해 작품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뜻을 알 수 없는 말조차도 리듬, 억양, 강세, 호흡과 프레이즈 등이 움직임과 결합하여 무용 고유의 매력을 발산시킨다. ‘입소리’는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뜻한다. 입으로 내는 여러 가지 ASMR들, 무용 작품에서의 속삭임, 악기 소리를 본 딴 구름들, 비트박스 등이 이에 속한다. ‘고함’은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하며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 3) 공간음악

‘공간음악(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은(는) 공간적 특성을 담은 소리로서 우주 공간을 묘사하는 ‘스페이스 사운드’와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앰비언트 사운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공간에 존재하는 사운드를 의미하며 ‘음악’에서 분류한 공간적 성향의 음악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다. ‘스페이스 사운드’는 음의 높낮이에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주파 음향으로서 중력, 무게감과도 관계가 깊다. ‘앰비언트 사운드’는 빗소리, 자동차소리, 기차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귀뚜라미 소리 등 시공간적 환경을 연상시킨다. 영화나 광고 등 미디어음악에서는 이 사운드를 효과음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무용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부각시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간음악의 또 다른 개념은 공간에서의 소리 현상, 음악의 공간성을 중요시하여 독일의 전자음악 작곡가 Stockhausen, K.이 창안한 공간음악(spatial music)이다. 이는 음악과 공학을 융합하여 만든 것으로 소리의 울림, 잔향 등 음악 제작에서부터 연주 공간에서의 출력까지 소리의 공간성을 중요하게 다룬 청취자 중심의 음악개념이다. 무용 공연장에서 음악 출력은 작품 몰입도나 감정 전달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음을 송출하는지 출력 방향과 소리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4)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는 움직임, 현상 등을 묘사할 수 있는 소리로서 무용에서 발생하는 ‘현장 사운드’, ‘효과음’, ‘심상적 사운드(visual sound)’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장 사운드’는 무용수의 움직임, 무대나 오브제 등 무용 공간에서 직접 발생하는 라이브 사운드이다. 손뼉, 발 구르기, 몸 부딪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물건 끄는 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효과음’은 작품에 실감을 더해주는 소리이다. 폴

리 사운드<sup>7)</sup> 합성된 사운드, 기계음, 전자음 등 인위적으로 제작된 소리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운드를 포함한다. ‘심상적 사운드’는 현상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소리이다.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과동’, 에너지의 증감에 따른 ‘흐름’, 시·공간에서의 ‘이동’ 등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리드미컬한 심상, 그리고 Delsarte, F.가 제시한 ‘힘(force)’, ‘속도(velocity)’와 관계가 깊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무용음악을 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고 무용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향후 무용음악 연구의 근본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무용음악은 전통적 음악부터 현대적 디지털 음향까지 총체적 토탈 사운드를 수용하며 형태와 양상의 관습적 틀을 깨고 무용의 예술적 본질에 가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용음악을 ‘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사운드’로 새롭게 정의하였고, 무용 고유의 특성을 기준삼아 ‘음악’, ‘보이스’, ‘공간음악’, ‘이펙트 사운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음악’은 움직임 특성 및 무용음악의 기능을 고려하여 ‘시간적 성향의 음악’, ‘공간적 성향의 음악’,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음악’, 그리고 ‘이미지를 부여하는 음악’의 총 4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보이스’는 공연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할 수 있는 ‘노래’, ‘대사’, ‘입소리’, ‘고함’으로, ‘공간음악’은 공간을 묘사하는 ‘스페이스 사운드’와 환경을 묘사하는 ‘앰비언트 사운드’로 재분류하였다. 움직임, 현상 등을 묘사하는 ‘이펙트 사운드’는 ‘현장 사운드’, ‘효과음’, ‘심상적 사운드’의 하위 범주를 갖는다.

무용음악을 ‘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사운드’로 새롭게 정의한 것에 대해 미디어적 시각으로 본다면 단순히 비디오와 오디오로 양분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용에 존재하는 사운드는 일반적인 청각적 현상이 아니고 무용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무용음악이다. 무음에서 소음까지, 아날로그 사운드에서 디지털 사운드까지, 심오하게 고안된 전통음악, 자연의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sup>7)</sup> 폴리 아티스트 Foley, J.의 이름을 본떠 명명된 용어로 상황에 부합하는 소리, 실존하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실존과 비슷한 효과의 소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의 지글거리는 소리를 빗소리로 사용.

말소리까지 작품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이 무용음악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예술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확대된 개념으로 무용음악을 재해석한 이 연구가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학문적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무용음악에 대한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은수(1996), **무용음악의 이해**, 서울: 삼신각.
- \_\_\_\_\_(2016), “효율적인 현대무용수업을 위한 피아노 즉흥반주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4)**, 119-137.
- \_\_\_\_\_(2020a), “무용음악: 노이즈 사운드의 미적 가치 및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2)**, 175-194.
- \_\_\_\_\_(2020b), “사일런스 사운드의 무용음악적 해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3)**, 111-126.
- \_\_\_\_\_(2020c), “무용음악의 가치 및 가능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101-115.
- \_\_\_\_\_(2021), “사운드의 정서적 효과 및 활용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61-74.
- 김태우, 장준규 (2019), “효과음의 유형에 따른 청각적 경험이 브랜드 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6(0)**, 49-60.
- 김희숙, 한혜리 (1999), **무용의 이해**, 서울: 한학문화.
- 이동현, 박정욱, 서영석(2018), “다중 회귀 기반의 음악 감성 분류 기법”,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7(6)**, 239-248.
- 임윤수(2019), “시각미술에 미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조형미디어학 22(2)**, 48-56.
- 전희연(2019), “영화의 음악의 내러티브적 기능 고찰”,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와 융합 41(2)**, 371-394.
- 하소현, 최진호 (2018), “영화 ‘라라랜드(LaLa-Land)’를 통해 본 영화음악의 기능별 특징”, 중앙대학교예술통화연구원, **예술문화융합연구 8(0)**, 41-55.
- 한혜리(2001), “현대예술로서 무용의 범주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2(2)**, 107-121.